

聖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八章 28절)

國立國會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番地
電話 東京1825番
神田(25) 2623番
編輯 吳 允 吉
發行 田 榮 澤
THE POK EUM SHIN MUN

西獨總選舉에 共產慘敗

基督教民主同盟大勝

아테나와西獨首相은 總選舉의 結果 壓倒的勝利로 다시 政權을 握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七日의 結果 發表되었다. 西獨國民은 西獨에서 基督教民主同盟의 大勝利를 望하는 것이요 그리고 네 나치스黨도 實質上 滅亡하고 共產黨은 慘敗하여 再起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社民黨의 總得票數 一六八〇九六票 對하여 三一八〇五二八의 得票을 四四에 對하여 一七三의 最大多數의 議席을 차지한 아테나와首相은 곧 政權工作을 마치고 議院會의 信任을 얻은 後에 「호이스트」大統領에게 再任될 것이다. 西獨에서는 후안스달라서 憲法上 四年 任期中에 是 絶대로 政府를 감지못하게 되고 首相의 地位는 극히 安定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이 前衛로 삼는 「붉은 共和國」인 東獨을 隣接하여 今後四年間은 東西冷戰의 극히 중대한 時期를 통하여 소련이 가장 싫어하는 政權이요 西歐側으로서 가장 信任할 수 있는 同盟者가 繼續하여 튼튼한 자리를 잡게 된다.

李拉內의 日本漁船追出과 日本政界의 輿論

지난 七日을 期하여 우리 政府에서는 日本漁船을 李拉內灣에서 追出할 것을 通知한데 대하여는 마친 클라司令官으로 부터 클라라인 撤廢의 對해서 大滿足을 느끼어 大擧出漁하게 된 日本漁業界와 政界에 대하여 相當한 衝擊을 주게 되었다. 各黨에서는 李拉內設定은 一方의 이요 國際法을 無視하는 것이요 따라서 今番의 措置는 不法한 것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그 中 與黨인 自由黨에서는 慎重을 期하여 韓國의 반성을 求할 것이라 하고 改進黨에서는 國

中共軍北韓 歸還捕

北韓으로 부터 送還된 國連軍捕虜는 北韓의 人民은 北韓으로 부터 食糧 衣服 및 住宅을 強奪한 中共軍을 극도로 미워

想 無題錄 秋湖堂人

먹고 마시고 남기고 돌아가고... (Text continues with reflections on life and death)

社說 第九回在日大韓基督教會에 바람

근일에 혹은 정치적 혹은 사회운동과 평화 운동들로서 政治의가 자주 열리고 政治와 經濟의 목적으로 열리는 政治도 하필과 가늘에 걸쳐서 많이 개최되고 있다. 보통 회의와 政治에는 그것 이 직접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시위적 (示威的)인 성질을 다분히 띠고 있고 또 한 사후적 이요 신적적 연회적인 목적 이 많이 있다. 政治의 총 화안은 이러한 모든 인간적 이요 세속적인 목적을 떠나서 신적인 영적이요 신성적 사명인 영적에서 모이는 것이 혹은 어떤 분구가 있을 때에 그것을 법에 따라서 다수결로 해결한다는 관념이 따르기 쉬우나 이번의 우리 총회는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이요 정치적인 성질을 떠나서 옛날 사도시대에서 성도의 교제와 예루살렘 다락방의 모임같이 위로부터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여지고 진행되는 성도의 모임이 되고 있다. 주 예수께서 친히 회장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문제 총회에 나오는 이들의 마음의 준비, 다시 말하면 많은 기도도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월 악마가 틀 타지 못하고 순전이 성신의 지도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악한 인간인지라 우선 이러한 목적을 달하기에만 깨어싸우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 금년 총회에 향하여 바라는 바는 총회에서 재일교포의 영혼을 구하라는 하늘의 사명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우리 동포 형제자매가 「와서 우리를 구하라」하는 자기도의 의식하지 못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는 귀를 가지소서 하는 바이다. 만일에 총회가 진실로 이 부르짖음을 듣는 사명파 형제들의 간증을 듣는 음성에 응

曰吾인 야蠻人則否? 午가
曰吾인 午가 野蠻人則다 文化
가 無다는 나西野蠻則 白蠻
에 混合함이 無인것은 蓋然
보면 그대當是 曰吾인 野蠻則
지 野蠻이든 우리도時 宜利
「新」의 思想을創得한다
合則對先生言 當時也 和
對 現代의 文化는 何지있어
度萬勿口 尺書發 實力보다
大量으로 矣이러는 研究者 曰
時는 甚惡 보아도 否定할수없
그런데 生口 같이 산다

言完全支配
虜實見談

민중을 사랑하는듯이 꾸미는 주의를 표방하는 가장 간악한 악마의 역사인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 원수는 인간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는 당할수없는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야 섬멸할수있고 이 악마의 손에 든 영혼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의 공는 사랑으로야 구할수있나니 이번 총회에 매우삼렘 다락방에서 받은 성신의 불을 받고 그 불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구하기로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의 교역자는 이 불이 없는것이 큰 결함이니 이번 총회를 기하여 불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

北韓의 鐵道및警察을 包含한 모든것을 管理하고있다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있다. 鴨綠江岸의 收容所로부터 歸還한 捕虜는 그들이 一年間이나 보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北韓軍의 一將校를 보았것은 그들이 開城에 到着하였을때라고 말하고있다 또한 歸還捕虜는 다음과같은 事實을 말하고있다 즉 中共軍은 北韓住民들을 매우 殘酷하게 取급하고있으며 北韓人民의 財産을 餘地없이 强奪하고있다.

北韓人民들은 中共軍을 미워하고 있으며 中共軍은 이 사람들의 感情에 대하여 특수한 고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어떤 還捕虜는 어떤 村落의 壁에 中共軍啊! 빨려가라! 하고 써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還捕虜의 大部分은 北韓의 市民은 中國人에 대하여는 友好的의였다고 말하고 있다. 美國人에게 對하는 것이 國落軍捕虜들은 北韓人間의 比참한 困難한 상태에 음 깊이 同情하여 捕虜의

聖恩中 各教會 發展을 求함

7. 원하오며 本會第九回定期總會
開催에 關하여 公告하나이다

1. 名稱 在日大韓基督教會

第九回定期總會

2. 時日 一九五三年十月十三日
早日 十四日卅日
(開會十三日午前十時)

3. 場所 名古屋教會堂
名古屋市中村區椿町

四ノ區

(東海道線名古屋驛南出口前)

1. 各教會 獻議案件은 所屬
地方會會 通過하여提出할것
(地方會會 通하지 않은 案件
은 接受하지않을口다.)

2. 各地方會에서는 選定한
代名者等 獻議案等을 九月
末日까지 總會書記局에 提

（書記局住所京都市有京區西區
矢野町二〇 京都教會內）
一、總金負擔金（洗禮敎人一人當
壹百圓式）金 未納者 敎會
는 總代가 持參하도록 할 것
追告
日本에 在신 우리同胞은서
基督教傳道會 願하시는是 或
은 過去 信仰生活을 하신是
분으로 傳道所나 敎會에 殷
立하고저 하는是 既成敎會는
서 本總會에 加入하고저 하
시는是은 今番 總會에 연락
하여주시면 極力協助하겠습니다
□ （以上）
東京都千代田區神田猿樂町二
ノ四
在日大韓基督教總會
在日大韓基督教
各教會 雲中

- 孫昌雄氏（發明家）九月三日
本社來訪
- 李振信牧師（大韓Y聯合會總務）
九月七日C A T 便○三 歸國
- 田榮澤牧師（本社主筆）九月十
六日C A T 便○二 歸國
- 張鳳仙氏（舊印印刷社長）同上



독서하고 명상할 때는 왔다.曰
위에 시달릴 때는 정신도 동요
하지니와 마음의 해이에서
모든 것이 게을러지고 자연 할
선임 일도 있었으나 이제 청
명하고 상통한 마음이 왔으니
날마다 아슬아슬 떨며 일어나기
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반
성하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글쎄 생각해서 남에게 빛
진것도 같도록 힘써야 할 것이
다. 금전의 빛진것도 같아야
하겠지마는 사랑의 빛 진것도
같아야 할 것이다. 금전의 빛을
안갈으면 도적이 될 것이요 사
랑의 빛을 못갈으면 배은망덕
의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그
밖에 또 한가지 큰 빛이 있
다. 그것은 주님께 은혜받은 것
을 형제에게 갈아아 할 것이다
사도바울이「지혜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로마 1:14) 한 것이
곧 그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빛이다.
○이번 총회에도 자네판 같이
전도의 열이 넘치고 전도운동
이 크게 전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회에서만 작정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실행할 것이다.
찾간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
서나 가정에서나 전도에 성의
를 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다 그래서 많은 추수가 열거
를 바란다.

日本基督教團全國宣教會議

參加하는各教會代表一千五百

日本の 宣敎の 新展開을 위
하여 日基督教團은 最初로 全國
宣敎會議을 오는 二十二부터
三日間에 걸쳐서 青山學院 宣
士見町 敎會 神田共立講堂의
三箇所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本
部에서는 牧師 宗司를 하고
있으나 今회의 會議는 總會도

大會도 하나 五箇年傳道의
終結과 國內傳道會發足의 記念
으로 日本의 宣敎方策을 協議
할것이요 全國二千의 敎
會로부터 牧師 信徒代表多數가
參加할것이며 現在까지 各敎區
別로보아 出席者는 千五百名이다

歸國途中의 金圭唐牧師



(金圭唐 牧師)

너가서 미시시피州로 歸國하
고 歸國하는 길에 지난 달
(八月二十四日)에 당지에 잠시
머물며 특히 宣敎會에서 宣
講하고있는 중인데 宣敎會의
용무를 마치면 歸國하여 宣
敎會에서 주로 주석변역 員
과 출판에 관한 일에 종사
하게되며 시간이 허하는대로
교수도 하리는데 씨는 미국
에있는 동포와 학생들의 사정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제국회정기총회를 앞두고

재일한국인은 六十만명이라고
하는 것과 공산주의자가 다수라
는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있
으나 일본에 한국인 기독교신자
가 千餘名이며 사실여개소나 되
는교회와 전도소를 가지고 있
는것은 아는사람이 많지않을
뿐 아니라 인식이 전연없다고
할수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의인증을 받을바요 세상 사람
들이 알든지모르지가 문제아
니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예수
님은 너희를 세상에 빛이되여
소금이되라고하신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은 반드시 어
수룩한 빛으로 알려저야 할것
이요 부패한 사회에 방부적인
소금으로 맛을 보여야 할것인

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같은
말씀을 하였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생활
은 넉넉하다고는 할수있으나
물질적 사업들을 해서 돈치
게 지내는 형편이다 그러나
나와 방면에서는 이들은 다른
사업도 하지 않는 농사일을
이하고 파수원 일을 하는
나와 내가 오는 길에 「리틀
메」를 들었을때는 파수원들
게 경호하여 줄 지내는 것을
보았을때 「그런데는 대개 노
동을 해서 지내지오 「리틀
메」는 교회가 있는데 이기종교사
가 담임해서 보신다 교회
크지는 못하고 그리 열심이
있다고는 할수없으나 가족적으
로 재미있게 지내더군요 그리
고 상하에는 잠간 들렀는데
교회와 여러분이다 별일 없
음이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형편은 알수없으나 최근에 건
나간 학생들은 그중 특별히
미순회관계로 가서 학자를 부
담해주는대가 있는이외에는 대
개 적고 생활을 하는 모양입
니다 그것은 왜그러나 하면
학비를 벌어야 공부를 할수있
고 학비를 벌려면 대개는 노
동을 해야하는데 그 노동이란
것이 전에 본국에서는 몸도

해방이후八년간 재일한국교회
는 수습기(收拾期)라고 할것
이며 제건기(再建期)라고 할
것이나 이제九回총회를 맞이하
는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전진기
(前進期)에 확장기(擴張期)
가 되어야 할것이다 소리를외치고
일어날때이며 「와보라 생명여
기에있고 민족의살건이여기있다」
고 열과거짓이없는 믿음으로 부
르짖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이번총회를 모임은 이러한 역
할을할수 있도록 전국신자에게
격려하는 회합이 되어야 할것
과자가 신앙적 은혜를받는 거
룩한 성도의 집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담같으나
본국장으로교회회는 여러해동안
신학문제와 신앙의 보수 진보
문제로 분열하고 세파로 나뉘
진모양이며 예배당정당전까지가
분열하고있는소식을 듣고있는
우리는 진정마음이아주게 생각하
는 동시에 그여파가 일본에 끼

지을까 염려하는 바이다 일본
에 있는우리의처지는 외국이라
는 것과 본국에서 말하는 정통
주의자 진보주의자란 두가지의
의주의가 없는까닭에 특별히 분
열을초래하는 악질적 분자가
생기지않는이상은 절대로 총회
가 갈라지거나 예배당정당전은
없을것이다 그러나호사다마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
어갈수록 맹렬히 활동하는것을
우리는 아바이다 마귀는 어
떻게 계획하는지모르는 사람으
로서는 항상주의와 경계는 해
야 할것이다.
이번九회총회를 앞두고 우리
는 참으로 각오가 새로워야
할것이며 이상으로부터 구체적으
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복음전도는 현실을무시
하고할수없는 것이며 허공을
치는 풍파리와 같은 소리만으
로는 세상에 인종을받지못할것
이다 이번총회에 우리는 구체

歐洲各國은基督教全盛

世界Y理事總會韓國代表

李桓信總務(大韓Y聯合會)視察談

지난七月중순부터 十日間에
 걸쳐 瑞西國全土 巡迴하면서
 개최되었던 世界YMOA理事總
 會는 世界七十餘國 YMOA
 代表 千餘名을集하여 성대히
 개최되었다는바 특히 同總會의
 特別간사와 그클리드로 맹
 동을 할뿐 아니라 매일같이 강
 연과 방송 신문제등 다각도
 로 활동을하여 한국의 실정과
 YMOA운동을 소개하고 도라
 온 대한YMOA총무 李桓信總
 務는 지난九月五日 아침에 瑞
 島의 瑞島의 여정을 마치고 香港
 經由空路로 東京에 도착하였는
 바 同氏는 우리東京敎會에서와

성인 되지는 얼마 지나서
 의속해지면 좋지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가있고
 별 사람이 없고 학교도 각가
 지요 유혹받아 타락하기 쉬운
 곳도 많으니까 사람이 착실하
 고 사정하기초가 튼튼한 사람
 이 가지아니하면 매우 어렵니
 다.

在日韓國YMOA學生總務席上에
 서 대략 아래와같은 歐洲시찰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번 瑞島巡迴에 걸쳐
 歐洲各國을(瑞西, 瑞島, 瑞島)
 시찰할수있었다 果然 瑞西國은
 瑞島의 印象은 실로 놀라
 운感激이었다 우선 瑞西國은
 數十地方으로 行政區가 나누
 되어있고 實地로 英, 佛,
 瑞島로 갈리나 「정치는 자치
 제로 단결되어 훌륭한 民主主
 義의 表現이되어 있는것은 놀
 라운일이다 그리고 국민성이
 순진하고 친절할뿐 아니라 근
 로의 정신이 높으며 각 정거

優秀者在日韓國科學生旨

만 한 사람의 예는 전부가 東大
阪大、早大東京物理大學等
工科계통의 학생들이었으며 그
中에는 벌써 大學을 마치고
외국유학을 가거나 科學
者도 있는바 특수한 수양이
다 강하는 주로 재일韓國教會
목사였고 大學敎授、敎會長老、
YMCA 幹部들이었으므로 朝夕
으로 예언는 물론 기독교에
관한 강의, 신앙생활에 대한
토론으로 밤낮 열렬히 지나는
데 불란것은 젊은學徒들의 탐
구심이 특히 하나님을 찾으려
고하는 열렬한 태도에 강사들

가래를 여러개씩 걸쳐서 실질
본위로 건축하는것을 보아도
독일국민성에 머리를 숙이지않
을수없었다. 西獨은 전부 부흥
되었으며 基督教民主同盟 아데
나우氏의人氣가 높았는데 그
가 이번 總選舉에 制勝할줄
임는다. 어딘都市나 地方部落을
물론하고 기독교의 세력이 강
하였으되 敎會堂을 中心하여
集結될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
의 중심이 곧 교회이었다. 히
틀러獨裁에 속임을 당한 全獨
逸國民들은 인간적인 지도자보
다 神의 계시를 아는 신앙적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피인少將三年만에釋放

六二五事變이 일어나는 一九五〇年七月에 大田을 死守하다가 不幸히 포로의 몸이 되었든 월리암·피인少將은 三年만에 지난 四日에 지리한 포로 생활에서 釋放되었다.

지금 五十四세인 그는 오랜 고생과 땀에 타서 초췌한 얼굴에 푸른빛 共產側모로수용소制服을 입고 하늘에 사모치듯



(피 인 少將)

(四 人 少將)

多摩川傳道所新築計劃

동경교회의 전도소인 다마가와 전도소는 이인하전도사가 성심노력으로 개척 설립한것이 바 신자가 점점 늘로 예배당 건축의 절박한 필요를 느껴서 작년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일편 기금을 모집하고 일편건축 설계를 진행중인데 이미 적당한 장소에 토지 六六평을 얻어놓고 우선 건평 一三평 반의 작은 건물 을 세우기로 계획하는바 경비는 三十만원 내지 七十만원이 될터인데 이미 수금된것이 십

多摩川傳道所新築計劃

이 도로혀 감화를 받았다고 하
며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생문제를 신앙을 통하여 해
결해보려는 것이나 과학을 통하
여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솔직한 청년들의 熱情的인 태
도에는 참으로 감명이 많았고
在日 우리學生들은 거의 무신
론적이며 공산주의자와같이 생
각하는 교회나 본국여론에 새
로운 각성을 주는 좋은 증거
였으며 이렇게 하울리고 애쓰
는 青年학도들에게 특히 과학
생들에게 기성교회가 적극적인
로 전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며 교회지도자의
무능력이었음을 절실히 느꼈
다고 한다.

(同修養會에 참석하였는 本社
員事務의 所感)

週間時報

만월이오 약속된것이 심만월이
라니 아직 많은 액수가 부족
되나 믿는 마음으로 오는 十
월초순에는 착공을 할 예정이
라는데 각 교회와 내외인사의
성익있는 원조를 기대하고 있
다고한다。

○ 林炳模韓國國連 音자一出
 是 三十日皆 當時 오하요大
 學에서 열리는 全國學生會議
 에 臨席하여 中共의 國連加
 盟을 許容치 難을것이라고
 演說하였음.

○韓國政府는 一日 正式으로
戰火都市 서울에 復歸하였음

○印度軍 千六百九十七名이 送
還不願捕虜管理員 하기위하여
英國輪送船인인미아 후라이
三號로 三十一日仁川 入港。

九月二日

○美國在聯軍人會第三十五回年大會는 二日政治會議가 決裂하
 ㅁ 일제히 利用할수 있는 兵器을
 使用하여 韓國에서 全面的戰爭을
 할것을 要望하야 決議案을 可決
 하엿다.

○ 陳內務部長官이 表明한데
에 依하되 美第八軍當局은 一
日 漢江渡河間에 關한 管理事
務를 韓國政府에 移讓할것을
同意하였음。

九月三日

○ 卞外務部長官 二日記者會見
席上에서 日本에서 復興物資
調達을 拒否。

九月四日

○日本漁船의 不法行爲에 抗爭
하여 姜水産中央會長 聲明

○韓美合

韓國再建案과 援助資金用途에
대하여 간談하였다。

九月六日

○捕虜交換은 六日로 完了。國
連側은 共產軍으로 부터 全部
一七六〇여명의 捕虜를 받았고

「칼빈의信仰과生涯」休載

남의 말뿐보다도 사람의 유전
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종교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도 일층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
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호도에
대한 실행자이었다는 것은 그가
심자가상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의 한 사람인 요한에게(보
라 네 어머니라) (요한十九장
27) 하신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동양인으로서는
동양사람의 미점(美點)인 호
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몸소
실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커다란 주먹을 쥐고
「요놈아 가거라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로
걸어 차보았다. 그러나 그 아
이는 골작 아니하고 서서 「아
이구 아이구」 울고 있었다.
김은 할 수 없이 제가 「아이구
하면서 방바닥에 엎어졌다. 그
리자 전신에 땀이 폭 흘렀다.
나이가五十이 되고 형사노릇을
오래하면서 이렇게 안타깝고
무서운 일은 처음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엎들며
「사람 살려 주」 하고 공중
벌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환
상은 그냥 나타나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럭저럭 밤이 깊고
사방이 고요하다.
「오냐 회당으로 가자」 하고
그는 옷을 대강 주어 입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그 아
이의 환상은 문밖에서도 기다
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막
달아났다. 미친놈 모양으로 막
달아나서 예배당안으로 들어갔
다. 캄캄한 예배당의 찬 마루
바닥에 작 쓰러졌다. 「하나님
사람 살려주소시오 나를 불쌍
히 여기소서」 하면서 엎드렸다.
가 무심코 강단쪽을 바라보았
다. 「아이구 살려주소시오」
그는 잠작 불라서 다시 엎드
렸다. 「아이구 아이구」
아이의 우는 소리가 강단위에
서 들린다. 김은 용기를 다 해
서 고개를 들어 강단쪽을 바
라보았다. 강단에는 분명히 피
하리니 형상이 나타나 서있다.
그 형상은 그 아이같이도 하
고 예수님같이도 하고 자세히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팔을 좌
우로 벌린 것과 심자가는 완연
하다. 「주여 예수님」
김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
이 하염없이 흐르기를 시작했
다. 강단에서는 「아이구 아이구
소리는 그냥 들리고 김은 눈
앞에 그 아이의 피 흐르는
모양은 그냥 보이고 눈물은
한없이 그칠새없이 그냥 쏟아
졌다.
「아이구 아이구 하나님 예수
님」 이번에는 김의 입에서 아
이구 소리가 북받쳐 나왔다.
「내가 왜 그 어린것을 그
불쌍한 어린것을 때렸다」
이런 악한 놈 이런 죽일놈
이 어디있다 나도 그런 자식
이 있지 않다 그 어미 아비
가 있다면 마음이 오죽 아프
라 오냐 그도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
나의 마음이 오죽 아프시랴」
이런 불친한 놈 이런 악독한
놈이 어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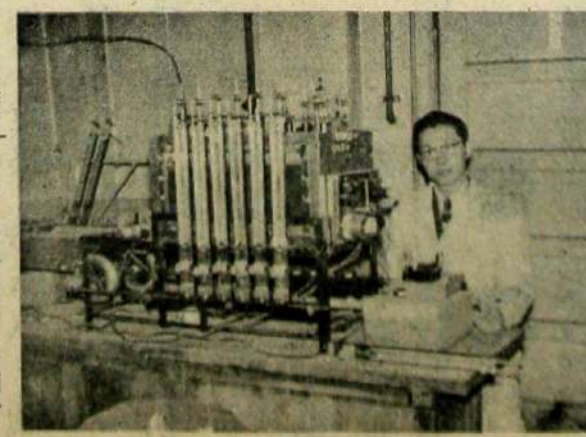
김은 마루바닥을 두드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었다.
마루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울었다. 벌떡 일어나서 이 편
담 저 편담에 몸을 부딪치면
서 울었다. 그리다가 밖으로
나가서 예배당 뒷산으로 올라
갔다.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며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찬
눈위에 굴면서 울었다. 이윽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
나님」 하고 울었다. 이렇게 한참
밖에서 헤매면서 울다가 날이
거이 밝자 김은 다시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들어가서
마루바닥에 엎들며 울었다. 울
다가 한번 강단쪽을 바라보았
다. 강단위의 환상은 그냥 서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구
아이구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 형상에는 그 어린것의 모
양은 조금도 없이 숨어지고
온전히 심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박혀서 예수님만 보였다.
그러나 그 몸에서 흐르는 불
은 피는 여전이 보였다. 그
피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가
시판 쓴 이마에서 흐르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
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
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香氣 하늘의 비석

내가 네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니 네 죄는 속해졌다」
이런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김은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수없이 머
리를 조아래 절을 하고 가든
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계속)

고 천사가 말하기를
「저것은 어디에 큰 집회가
열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진실한 것이 없기 때
문에 하늘에는 상할되지 아니
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모기
소리만 한 소리가 들리더니 또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비
면에 차차 경건한 기도의 말
씀이 나타난다.
「저것은 믿음이 확실한 신자
의 기도다」 라고 천사가 말하
였다.
마태六、617 마가一、35
마태二四、21 야곱五、16

祖國을爲하여 (2) 京都大學醫學部 公衆衛生教室



(이 회 동 군)

심년전에 세무관스醫科大學을
졸업하고 현재 京都大學 公衆
衛生教室에서 니시오(西尾) 교
수 밑에서 공중위생을 연구하고
있는 군은 본시 東京 Y M O A
총무로 계셨고 본국에서 외국
어 학교를 다녔 경험하다가 사
범당시에 세상을 떠나신 교육
계의 유공한 이기윤선생의 영
식으로 금년안으로 박사논문은
끝나고 명년에는 공중위생과
관련이 많은 결핵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리라고 한다.
군은 천성이 온후하고 학구
심이 확실할 뿐 아니라 천천의
신앙을 받아서 신앙심이 또한
독실한 유망한 청년 학자이다

군은 필자에게 아래와 같은
포부를 말한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이
렇게 무사히 연구생활을 진행
하고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중위
생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압
니다. 특히 결핵과 공중위생의
관계가 큰데 이제 할 수 있으며
재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국
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를 마친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재일 동
포의 위생상태도 연구하고 아
평생을 조국동포의 위생을 위
해서 살아볼 작정입니다.

韓國民族의 所願과
(3)

그
達成의길

제임스 · 어 · 피시어 博士

6	封建主義 및 植民地政策으로부터 해방되지 얼마되지 아니한 韓國에 거기엔 必然코 經濟的인 不均等과 不正이 있을 것이며 資本家들은 모든 產
	女基督敎信者들이 있다 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國民의 社會 및 經濟生活의 諸問題는 人道主義的인 方法으로 解決되리라 믿는다。

業에 있어서 有利한 地位을 獨占하여 가난하고 無識한 勤勞大衆을 取할 機會이 있다 그러므로 政府는 尙상 國民全體의 社會保障 및 經濟均等을 하려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들 經濟的인 「다수」에 「一」을

勞働組合을	組織하여	自由로운	勞働組合을	組織하여	自由로운
勞働運動을	展開하여	一般大衆	勞働運動을	展開하여	一般大衆
의 生活水準을	높여야	할 것이	의 生活水準을	높여야	할 것이
이 民主的인	時代에	勞働者、	이 民主的인	時代에	勞働者、
農民을	옛날과	같이	農民을	옛날과	같이
濟狀態에	둔다	는 것은	濟狀態에	둔다	는 것은
점점	困		점점	困	
利用하도록	하였고		利用하도록	하였고	
리들의	自然資源을	經濟的으로	리들의	自然資源을	經濟的으로
지	않으면	안된다.	지	않으면	안된다.
服하	나갈	方法을	服하	나갈	方法을
缺乏等의	여러가지	要素를	缺乏等의	여러가지	要素를
먹고	貧困飢餓 및	生活必需品의	먹고	貧困飢餓 및	生活必需品의
勞働組合을	組織하여	自由로운	勞働組合을	組織하여	自由로운
勞働運動을	展開하여	一般大衆	勞働運動을	展開하여	一般大衆
의 生活水準을	높여야	할 것이	의 生活水準을	높여야	할 것이
이 民主的인	時代에	勞働者、	이 民主的인	時代에	勞働者、
農民을	옛날과	같이	農民을	옛날과	같이
濟狀態에	둔다	는 것은	濟狀態에	둔다	는 것은
점점	困		점점	困	
利用하도록	하였고		利用하도록	하였고	
리들의	自然資源을	經濟的으로	리들의	自然資源을	經濟的으로
지	않으면	안된다.	지	않으면	안된다.
服하	나갈	方法을	服하	나갈	方法을
缺乏等의	여러가지	要素를	缺乏等의	여러가지	要素를
먹고	貧困飢餓 및	生活必需品의	먹고	貧困飢餓 및	生活必需品의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1) 善良한政府이 이것은 公明正大하고 能率적인 國家의 繁榮을 保證할 것이며 浪費를 防止할 것이다. 할

(2) 工業建設 및 自然資源을 開發하는데 必要한 職業教育과 技術教育

(3) 外國市場을 確保하고 輸出入을 促進시키며 産業發達을 위한 外國資本의 投入을 容易케 하는 國際親善關係

(4) 난대있는 投機事業을 防止하고 「인부레」 및 不正한 融資을 禁止하는 銀行 및 其他 財政機關에 대한 政府의 嚴格한 取締

그러하여 韓國의 經濟는 榮
榮할 것이며 一般國民의 生活水
準은 지금보달도 훨씬 높아지
수 있을 것이다. 이 繁榮을 保
障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는
共產主義의 影響을 조금도 받
지 않은 自由民主政府이다.

8 韓國民이 願하는 또 하
나의 問題는 現代科學的인 醫
學治療法의 普及化이다 適當한
醫療法과 外科術手로써 能히
고칠수 있는 數 많은 病者들이
지금 韓國에서 죽어간다. 그러
므로 幼兒의 死亡率은 美國보
다 훨씬 높다. 結核 및 其他
傳染病은 많은 犧牲者를 내어
每年 數 많은 患者는 죽어간다

가을의 노래

無名草

가을은
이 가을은

字宙의 어디서

가슴
버려
맞는

이 가을은 왔고

가을은

땅 위의
어디 보
다도

병든 내 가슴에

재빨리

시
능
시
능
소
소

지
마
들
디
자
하

줄어
소리
날이
소리마
문에
곤난
그 만

기의
과 끝
옛 소
때문
기가
어지고

“고 줄
러령”
어 안
내기
를 내
안 줄

줄기의
는 그
가 “프
되어
소리
소리를
그만

그
이차
수
장으로
길게
“ㅎ”
져서

에
는
디의
이성
를
연
여

从

권
러나
러니
컬
러며

- 퍼
- 퍼
- 퍼
- 퍼
- 퍼

의
의나
의니
의로
의며
의야

다.
령~으
령~으
령~으
령~으
령~으
령~으

7. II
II
II
II
II

은
라

퍼령~으오 → 퍼러오
이와 같이 줄기 “퍼령”이 “으”
(출소리)로 시작하는 씨끝을
만날 때에 그 “ㅎ”과 “으”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저 “ㄹ”
벗어난물이와 비슷합니다.
(말소리)
L. 퍼령~게 (=퍼러게)
좋은, 좋으나, 좋을, 좋습니다.
남은, 남으니, 남을, 남습니다.
닿은, 닿으니, 닿을, 닿습니다.
쌓은, 쌓으니, 쌓을, 쌓습니다.
이 “ㅎ”벗어난물이씨는 펴
까다로운 것인데, 통일안에는
하야니, 하얀, 하야면, 하얌”의

(7) 벗어난품이씨~ 2

2. ㅎ 벗어난품이씨

다음 것과 차례를 하나 바꾸어 ㅎ 벗어난품이씨를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ㅎ 벗어난품이씨는 지난 시간의 ㄹ 벗어난품이씨와 비슷한 점이 있어 이해하기 쉽겠기 때문입니다.

「퍼렇다 (靑), 하얗다 (白)」이런 말의 줄기는 「퍼렇, 하얗」인데, 그 맨 끝이 ㅎ이 아닙니까? 그 ㅎ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일이 있으니, 이렇게 ㅎ이 줄어드는 품이씨를 ㅎ 벗어난품이씨라 합니다.

7. 퍼렇~으ㄴ → 퍼러
 퍼렇~으나 → 퍼러나
 퍼렇~으니 → 퍼러니
 퍼렇~으ㄹ → 퍼러
 퍼렇~으며 → 퍼러며
 퍼렇~으면서 → 퍼러면서
 퍼렇~읍니다 → 퍼럽니다
 퍼렇~으시네 → 퍼러시네
 퍼렇~으오 → 퍼러오

이와 같이 줄기 「퍼렇」이 「으」(출소리)로 시작하는 씨끝을 만날 때에 그 ㅎ과 「으」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저 ㄹ 벗어난품이씨와 비슷합니다.

(말소리)

ㄴ. 퍼렇~게 (= 퍼러게)

L. 퍼령~게 (=퍼러게)

그리하여 韓國의 平均壽命은 오섯동안 醫藥品, 衛生施設 및 養生法을 使用하여오 美國 및 其他 國家보단 대단히 낮다. 韓國은 다음의 몇가지 點을 留意하여 實施한다면 國民의 健康은 向上할것이고 死亡率은 減어지고 壽命은 長어질것이다

(1) 醫學教育에 注力할것
(2) 適當한 公共衛生團을 各處 設할것
(3) 有能한 醫師를 外國에 聘하여 專門教育을 시킬것

小說 新 韓 譯 作 (27)

시련의 고개 / 태호는 어디 갔는가? 처음에 명애를 찾아보려고 나갔다가 길에서 해를 만나고 용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한 태호는 집에 돌아와서 옷입은 채 하루밤을 지내고 그 이른 날도 일찍이 사람 모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알아보았으나 「정명애」라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경찰서 마다 소위 보안서마다 찾아보고 정 보내에도 열라해보았으나 알 도리가 없었다 명애는 제 이름대로 적혀있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원「이혜경」이란 이름으로 적혀있기때문에 아무

내 가지의 보기가 있을 따름이며 어떤 말본에서는 「근. 근. 근.」 어떤 책에서는 「근. 근. 근.」 또 어떤 말본에서는 「모든 물소리」의 위에서 같이 준다고 각각 말하였습니 다. 여기서는 우선 위의 「과 같은 범위로 설명하여 놓았습 니다.

퍼령~다 (=퍼러다)
퍼령~든지 (=퍼러든지)
퍼령~초
퍼령~지 (=퍼러지)
그러나 이와 같이 달소리로 시작하는 씨름을 만나면 「하」 소리가 똑똑히 드러납니다 관 하+가+구 하+다+드 하+지 +다」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

(4) 各分野의 專門家를 外國으로부터 招인하여 國民全體의 健康과 風土病을 研究케 할것
(5) 全國各要所에 公立病院을 設置할것.
(6) 國民의 非學的이며 迷信的인 治療法을 除去하고서 適當한 食養法, 養生法 및 衛生法을 通하여 그들의 健康을 유지하도록 教育할것 (계속)

왔다가 봉수와 식구들이 피신 하라고 권하는 말에 못견디어 할수없이 다시 뒷 일을 봉수에게 맡기고 안암동으로 갔던 것이었다.

안암동에서 몇날 꼭 가쳐있 는 동안 밤낮 별종거리고 돌아다니는 태호는 갑갑중으로 병이 날지경이었는데 게다가 전에 약먹던 거친 음식들을 먹어서 그랬는지 마친 먹는것이 체하고 마리아 가운도있고 해서 한 이틀 누워 몹시 앓았 는것이다 알고 나서 병석에 일어나 태호는 명애는 문안에 들어가고 불만한 책도 못가져 오고 하도 갑갑해서 그냥 사소한 일음세로 술을 걸어서 영도사쪽으로 산보를갔는것이다

태호는 뜻밖에 영도사 어떤 집앞에서 해를 만났다 피뢰 군장교들의 연회에 따라 나왔 는 길이었다.

「이제 운동부 웬 일이세요? 어디가 편치 않으세요?」 해련은 막 불잔을듯이 달려들 어서 손을 내 밀어 악수를 하고 놓지아니한채로 웃음을 띄고 정다운 표정을 보였다.

「웬 일이요 여기 어떻게 왔 소 지난번엔 수구를 많이 끼 처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 도 고마운 일사를 하려고 하 든 차인데 잘 만났군」

「대관절 영부인께서는 어찌 되셨지요」

「나와서 저 혼자 나왔어」 하 고 태호는 이름이 제 이름으 로 되지않고 「이혜경」이란 만 이름으로 되었기때문에 못찾는 연유를 설명하였다.

「아모리나 잘 되었군요만요 한 턱 하십시오」

「한턱 하구말구요 이담에 봅 시다 요새 미쓰 송도 아다실 이 율태호두 말이 아니라오」 「죄우간 이리 좀 들어오서요 우리 언니네 집에랍니다 들어 가서 좋아하시는 때루나 한잔 하십시오」

이리하여 태호는 어떤 요리 집 이숙한 방에 들어가서 해 련의 권하는대로 배부는 먹고 게다가 위스키도 몇잔 마시고 보니 알고나서 기운이 없는데 다가 술이 취해서 정신없이 돌아떨어졌다.

리 해련다 그밖에 유력한 걸 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았건만 찾아질 까닭이 없다.

그래서 태호는 하도 다니다 가 지쳐서 또 수구를 기다리 는 동안 종로에서 YMOA 회 관에도 들어 앉아보고 명동에 서 영화구경도 했다 YMOA 에는 「기독교민주동맹」이란 커 다란 간판이 붙어있고 그 안 에는 탈출하지 못하고 마지못 해 협력하는채하고 있는 목사 장로들의 맥 빠진 얼굴들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키 큰 박목사 사람 똑똑한 김목사는 민주동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쁜듯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태호는 썩 아니 끔게 보았다 태호는 보시 영화를 좋아하기때문에 노동자처럼 반 미치광이처럼 꼴을 하고 그때 의 영화라는 영화는 거진 다 보았다 「석화」 「청년근위대」 「열바강반의 상봉」등의 영화 도 이때에 보았다 기술적으로 보아서 꽤 좋은 정도 있었으 나 일률적으로 공산주의 선전 에 지나지 아니한것을 보고 태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 서 나오듯 하였다.

사흘째 되는 저녁에야 궁금 해서 혼자동침에 갔다가 막 집으로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마침 석방되어 나오는 명애를 반가히 만났고 둘이 같이 호 자동으로 다시 가서 밤을 지 냈다 이른날 신랑이므로 돌아

在日大韓基督教婦人傳道會 連合會定期總會開催

「시일」 一九五三年十月七日午前 十時三十分부터 八日正 午까지

「장소」 武庫川教會 尼崎市今北小袋五七

「총대 회원」 十人當一人씩

「비용」 一泊三食費 壹百八十圓

「요청」 각교회 부인전도회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一九五三年九月七日 부인전도회연합회

福 音 醫 院

本醫院은醫療傳道을目的하고開設한 內科, 小兒科, 外科, 內臟外科, 產婦人 科, 皮膚科, 性病科, 各科擔任醫師完備

一、治療時間

午前九時—十二時
午後二時—五時
午後六時—九時
往診隨時宿直醫師二人有

一、特別健康相談部

1、兒童健康相談部
毎月第二、四木曜日
自午後六時—至八時
相當醫師元京都府立醫科大學教授 醫學博士 三宅 廉

2、結核相談部
毎月第一、二、三、四木曜日
自午後五時—至七時
擔當醫師 醫學博士 長岡弘道

場 所
大阪市東淀川區南方町九〇九ノ四七 (前南方教會堂)
但阪急南方驛前徒歩約二町